

수행모임 '금강' ... 묘금륜원 세우고 정진 박차

오는 6월 충남 태안에 완공...단체 법인화 준비중

청화 스님(1924~2003)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는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의 정기 오프라인 모임인 '금강정진회' 가 오는 5월 24일 100회 회향을 맞는다. 이와 함께 금강카페는 충남 태안에 금강도량인 '태화산 묘금륜원'을 오는 6월 완공하고, 단체를 법인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금강 카페지기 배광식 회장(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은 "많은 금강카페 회원들이 정례모임 외에도 수시로 모여 정진할 수 있고 금강 대화상과 청화 스님의 혜명을 널리 펼 수 있는 고정된 도량을 발원했다"며 "이에 금강 회원들은 깨어있는 행동으로 널리 모든 생명의 이익과 행복을 이룩하길 발원하고 2006년 11월 25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염불선 천일수행 입제와 함께 금강도량 발원 모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회장은 "8년이 지난 지금 3차 천일수행 중이며, 지금까지 많은 회원들이 일과 수행에 맞추어 보시금을 적립, 올해 현재까지 총 3억여원이 모였었다. 또한 신심 깊은 도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마애불이 조성된 태안의 땅을 기꺼이 회사하고, 2013년 11월 22일 금강도량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카페 회원들은 '금강불사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9월 발족하고, 금강카페 수행도량 후보지를 결정해 대지면적 2483㎡

(751평)에 건축면적 177㎡(53.57평), 연면적 263㎡(79.8 평), 지상 2층의 3억 5천만 원 규모의 금강도량인 '묘금륜원'을 세우고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묘금륜원에서 금강카페 회원들은 정기 철야정진을 비롯한 별시수행과 개별정진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술세미나와 불교강좌 및 문화강좌를 열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광식 회장은 "많은 금강카페 회원들이 정례모임 외에도 수시로 모여 정진할 수 있고 금강 대화상과 청화 스님의 혜명을 널리 펼 수 있는 고정된 도량을 발원했다"며 "향후 묘금륜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개인 수행처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수행공동체 마을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페 유지비결... '도반'과 '꾸준한 수행'
"심은 허공과 등할 새, 편은척성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인달하여 비로자나불을 염하고마음은 허공과 같을새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같은 마음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5월 13일 저녁, 서울 조계사 인근 오피스텔에 '승우당'이라는 문패가 걸린 곳에 30여 명의 인터넷 금강카페 회원들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청화 스님(1924~2003)의 보리방편문을 염송한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금강강독회 회원들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모여 각자의 수행을 점검하고 청화 스님의 법문을 공부한다(사진 왼쪽). 6월 완공 예정인 묘금륜원 선원(사진 오른쪽).



5월 24일 금강정진회 100회 회향 묘금륜원 불교강좌·세미나 실시 "수행공동체 마을을 만들 계획"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서로 질문·토론하며 공금증을 해소하고 청화 스님의 법어 집인 '가장 행복한 공부'를 강독하며 수행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배광식 회장은 2002년 보리방편문 사경을 비롯해 생활법문과 다양한 수행법을 접할 수 있는 금강카페를 다음(cafe.daum.net/vajra)과 네이버(cafe.naver.com/huineng)에 개설한 이후로 회원들은 꾸준

히 청화 스님의 사상과 가풍에 따른 염불선 수행을 실천하고 있다.

금강 카페는 '다음(daum)'에서 7000여명, 네이버(Naver)에서는 5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5월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회원들은 현재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모임을 이어왔다.

오프라인 모임에는 매월 둘째 화요일에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 불교서적을 읽는 '금강강독회'와 매월 넷째 주 토·일요일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철야정진을 하는 '금강정진회'가 있다. 현재 금강강독회는 5월 13일 97회를 맞았으며, 금강정진회는 오는 5월 24일 모임 100회를 맞는다.

이밖에 금강카페 회원들은 매일 일상에서

보리방편문의 '아미타불' 108독 봉독을 하고, 인터넷 사경을 통해 신심을 다져나간다. 네티즌 '무열'을 사용 하는 금강카페 회원은 "나"라는 상을 놓아 버리니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능현'은 "금강카페에 와서 느낀점은 도반님들이 차원 높은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두가 불교 핵심을 관통하는 금강 선사, 청화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신심 깊은 도반을 보면서 생활하다 보니 조금씩 커가는 느낌이 듭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배광식 회장은 20년 넘게 염불선 수행을 해오고 있다. 그의 염불선(念佛禪) 수행은 청화 스님의 보리방편문을 계승발전 시킨 것으로, 금강 카페도 청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개설한 것이다.

배 회장은 "청화 스님께서도 평소 '대중이 많이 모이는 법회도 중요하지만 몇 명이 되더라도 모여서 제대로 수행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혼자 수행을 하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결심이 흔들려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도반들과 일정기간 한 가지 수행을 함께 하고 공유하면 지속하기도 쉽다. 많은 회원들이 금강카페를 통해 신심을 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웰다잉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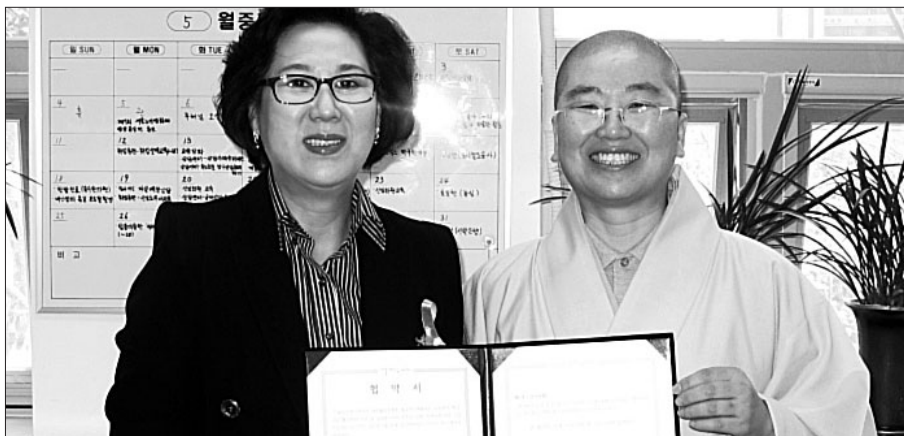
노인상담 활성화 위해 강사파견 및 상담원 지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이 노인복지와 노인상담 활성화를 위해 강사파견과 상담원을 지원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희우)와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 14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실에서 웰다잉 관련 교육·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웰다잉운동본부 발족한 불교여성개발원은 웰다잉 지도자과정을 개설, 관련분야 전문가를 양성해온 불교계 대표적 웰다잉운동단체다. 올해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웰다잉 강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관장 최희우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 덕분에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희우)와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 14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실에서 웰다잉 관련 교육·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발굴해 노인들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경연 원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

으로 하는 사업을 회향할 수 있도록 해 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의 노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배현진 기자

"미국 서부지역·사찰 탐방... 국제감각 길러요"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제4회 한미불교문화유산 연수단' 모집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수암)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는 청소년들을 한국불교 인재를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제4회 한미청소년 불교문화유산 연수단'을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8월 7~17일 10박 11일 동안 LA, 샌프란시스코, 그랜드캐년 등 미국 서부지역 일대에서 진행된다.

한국 학생을 비롯해 미 동부와 서부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과 함께 UC버클리, 스탠포드, UCLA 대학탐방을 비롯해, 그랜드캐년, 태평양 연안, 금문교, 할리우드 등을 관광하고 실리콘밸리와 인텔 뮤지엄, 시빅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LA 테고사, LA정혜사도 순례한다.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세계 불교문화 체험과 국제 행사 경험을 통한 타문화의 이해와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교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대표 정범 스님은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기에 안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쉽지 죄스러운 마음이다. 봉축 행사를 비롯해 많은 행사가 취소·축소됐기에 청소년 연수단 모집 안내문을 보내려고 하니 망설임이 앞선다"며 "하지만 1년 전부터 기획된 일이라 부득이 하게 일을 진행하게 됐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까지이며 홈페이지



2013년 12월 진행된 제4회 한미청소년 불교문화유산 연수단의 참가 학생들이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www.dourim.net)에 접속 후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메일(kbin8985@naver.com)이나 팩스(02-733-8985)로 접수하면 된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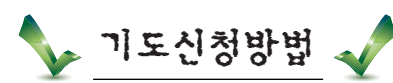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료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